

유승화

Web BackEnd Developer

baesuk105@naver.com / 01096100347

https://programmers.co.kr/pr/sniper_ditto

사용해본 기술들

HTML / CSS / JAVASCRIPT

input, div, table, form 등 여러 태그들과 대표적인 속성들을 사용해보고 CSS 를 적용시켜 웹 페이지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
javascript 와 jquery 를 통해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부터 쉽고 간단한 방법까지 이벤트 발생 관련 제어와 입력되는 데이터, 표현하려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음

ORACLE DATABASE

데이터베이스 계정 생성과 권한 할당, Oracle Cloud 를 이용한 DB 사용 환경 세팅, 데이터의 정규화에 대한 개념과 테이블 구성부터 프로시저를 이용한 CRUD 구현, Join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조건의 데이터를 추출

JSP, SERVLET, SPRING

DATABASE 와 연결하여 데이터 입출력 구현, Connection 객체를 이용한 기초적인 방법부터 MyBatis 를 이용한 방법까지 여러 가지로 다루어 봄
Windows 환경에서 Eclipse 를 이용, MacOS 에서 intelliJ 를 이용해 다양한 스프링 개발 환경 세팅 경험
간단한 게시판의 CRUD 구현, 권한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메뉴 관리 구현, DTO/VO 와 DAO, Service, Controller 등 MVC 패턴을 직접 구현해 보며 인터페이스의 상속과 느슨한 결합, 그리고 그를 이용한 의존성 주입의 개념 이해

JAVA

JAVA 의 기본적인 문법부터 객체지향에 관한 개념 이해,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유닛들을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이용해 구현하며 이해

교육

2014.03 - 2019.02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2020.09.07 - 2021.03.17

천안 휴먼교육센터

파이썬 자바 기반 AI 활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2022.01.24 – 2022.08.01(예정)

부경대학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바 개발자 과정

어학 및 자격증

- TOEIC 855 (2017.08 취득)
- 정보처리기사 필기 합격

자기소개

프로그래밍을 접하다

대학교 시절 컴퓨터 동아리에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습니다. 학과 선배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멋있어 보여 동아리에 무심코 가입했는데, 그것이 개발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직접 컴퓨터를 분해해보고 학교 동아리원들과 어떤 부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탐구했고, 직접 조립해 작동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동아리 컴퓨터들을 관리하며 가벼운 고장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부품들을 구입해 조립하고, 윈도우 OS 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며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바 웹 개발 교육을 받다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혼자서 공부 방향을 잡기 힘들어 천안 휴먼교육센터의 국비지원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접했던 것들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 수료 이후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져 다시 혼자 공부하다가 넓은 곳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어 대학을 다녔던 부산으로 돌아와 부경대학교 자바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저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혼자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중 여러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타인에게 바로 물어보기보다 홀로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여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지만 덕분에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는 능력과 문제를 탐구해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동료들에게 접근해 대화하며 공통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다

이전까지는 프로그래밍을 주로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개개인의 역량만 뛰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부경대학교 자바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동료들을 만나고 같이 조별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며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고려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달리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만나 제가 아는 지식을 알려주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